

황현아 연구위원

### 요 약

코로나19로 시행이 유예되었던 영국 위플래쉬 개혁이 2021년 5월 31일 전면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i) 위플래쉬 부상에 대한 정액 배상 기준 최종안이 마련되어 곧 확정될 예정이고, (ii) 교통사고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하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iii) 소액사건 보상금 청구 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포털사이트도 5월 말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임. 영국 위플래쉬 개혁은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실천적 방안 및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예외 규정이 함께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코로나19로 시행이 유예되었던 영국 위플래쉬 개혁(Whiplash Reform)이 2021년 5월 31일 시행될 예정임
  - 영국의 위플래쉬 개혁은 교통사고 관련 분쟁 비용을 절감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위플래쉬 부상<sup>1)</sup>에 대한 정액 배상, 진단서 제출 의무화, 소액사건 보상절차 효율화를 주된 내용으로 함
  - 개혁안은 당초 2020년 4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최근 2021년 5월 31일로 시행일이 확정되었으며, 2021년 2월 제도 시행을 위한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및 실무 지침 등이 발표되었음<sup>2)</sup>
  - 본고에서는 위플래쉬 개혁에 관한 기존 검토 내용<sup>3)</sup>을 전제로 최근 변경·보완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 위플래쉬 부상에 대한 정액 배상 기준표(Whiplash Tariff) 최종안이 제시됨
  - **(관련 규정)** 위플래쉬 부상에 대해 정액 배상을 하도록 한 민사책임법(CLA 2018)은 하위 규정(Whiplash Injury Regulation)에서 부상 기간별 배상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무부장관은 최근 하위 규정 최종안을 발표함
  - **(배상 기준)** 기존에 제시되었던 초안에서는 부상 기간별로 단일한 배상액이 제시되었으나,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에서는 (i) 신체 상해만 인정되는 경우(〈표 1〉의 '신체 상해')와 (ii) 신체 상해와 함께 경미한 정신적 충격(minor psychological injury)이 인정되는 경우(〈표 1〉의 '신체 상해+정신적 손해')로 구분하여 배상액을 정함
  - **(배상 금액)** 부상 기간별 배상액은 종전에 £235~3,910로 제시되었으나, 최종안에서는 (i) £240~4,215(신체 상해만 배상하는 경우) 및 (ii) £260~4,345(신체 상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경우)로 다소 상향되었음<sup>4)</sup>
    - 정액 배상 기준표를 보면 부상 기간이 짧을수록 제도 시행 전후의 배상금 차이가 크게 나타남

1) 위플래쉬 부상(Whiplash Injury)은 편타성 손상으로 번역되며, 경추·요추 염좌, 운동제한 등이 이에 포함됨

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ivil-procedure-amendment-no-2-rules-2021-and-practice-direction-update-129>

3) 황현아(2020. 8. 10), 「영국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Whiplash Reform)의 내용 및 시사점」, 『보험법리뷰』, 보험연구원

4) 이는 그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한 것이며, 향후 매 3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금액이 조정될 예정임

- 부상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배상액(£240/£260)은 2015년 평균 배상액(£1,750)의 약 14% 정도이나, 부상 기간이 18~24개월인 경우 배상액은 2015년 평균 배상액과 큰 차이가 없음
- **(기타 사항)**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준 배상액의 20%까지 증액을 허용하는 방안 및 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사항은 기존에 제안되었던 내용과 동일함

〈표 1〉 위플래쉬 부상 기간별 배상액

내용	2015년 평균 배상액	개혁 후 배상액(최종안)	
		신체 상해	신체 상해+정신적 손해
3개월 이하	£1,750	£240	£260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2,150	£495	£520
6개월 초과~9개월 이하	£2,600	£840	£895
9개월 초과~12개월 이하	£3,100	£1,320	£1,390
12개월 초과~15개월 이하	£3,500	£2,040	£2,125
15개월 초과~18개월 이하	£3,950	£3,005	£3,100
18개월 초과~24개월 이하	£4,500	£4,215	£4,345

자료: Whiplash Injury Draft Regulation(최종안, 2021. 5. 31 시행 예정) s.3; UK Ministry of Justice(2017. 2)

○ 교통사고 소액사건 기준 금액이 £1,000에서 £5,000로 상향되어 소액사건 관련 특별 절차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소액사건 직접 청구를 위한 포털사이트도 5월 말 오픈될 예정임

- **(소액사건 기준금액)** 영국 정부는 2021년 2월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을 개정하여 교통사고 소액사건 기준금액(RTA Small Claims Track Limit)을 £1,000에서 £5,000로 상향하였음<sup>5)</sup>
  - £5,00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부상 자체로 인한 통증 및 불편(PSLA: Pain, Suffering and Loss of Amenity) 관련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10,000가 기준금액임
  - 청구인이 ①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로 이용자(vulnerable road user)<sup>6)</sup>, ②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undischarged bankrupt) 및 ③ 사망자의 대리인인 경우와 ④ 가해 차량이 영국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000를 소액사건 기준금액으로 함
  - 한편, 청구인이 어린이나 피후견인(protected party)<sup>7)</sup>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소액사건 청구절차)**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 소액사건 관련 제소 전 프로토콜(RTA Small Claims Protocol)’<sup>8)</sup>에 따라 소액청구 전용 포털사이트를 통한 청구 및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함
  - RTA Small Claims Protocol은 당사자 간 공정한 합의에 관한 사항 및 소송 제기 전 준수해야 할 절차 등을

5) Civil Procedure Rule 26.6

6) 오토바이 및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등이 이에 해당함

7) 소송절차를 단독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과 유사한 개념인 것으로 보임

8) Pre-Action Protocol for Personal Injury Claims below the Small Claims Limit in Road Traffic Accidents

- 정하고 있으며, 소 제기 전 Official Injury Claim Portal<sup>9)</sup>을 통해 보상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 청구인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없게 됨

〈표 2〉 위플래쉬 개혁 관련 최근 변동 사항

항목(관련 규정)	주요 내용
Whiplash Tariff (Whiplash Injury Regulations 2021)	- 부상 기간 24개월 이하인 위플래쉬 부상에 대한 정액 배상 기준 마련 - 신체 상해만 인정되는 경우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는 경우로 구분
Small Claims Track Limit (Civil Procedure Rule 26.6)	- 교통사고(대인) 소액사건 기준금액을 £1,000에서 £5,000로 상향 -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 인정(패스트트랙 적용, 종전 기준 적용 등)
Small Claims Protocol (RTA Small Claims Protocol)	- Official Injury Claim Portal을 통한 소액사건 청구절차 마련 - 포털사이트는 2021년 5월 오픈 예정

- 영국의 위플래쉬 개혁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액사건 청구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및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예외 규정이 함께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위플래쉬 개혁의 핵심 사항인 경상환자 정액 배상 및 진단서 제출 의무화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임
  - 다만 영국 정부는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i) Official Injury Claim Portal을 통해 보상청구 및 합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ii) MedCo Portal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sup>10)</sup>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소액사건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어린이, 피후견인,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보상 체계 효율화는 물론 개혁 실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제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9) <https://www.officialinjuryclaim.org.uk/>

10) MedCo Portal에 관한 사항은 황현아(2020. 8. 10), 「영국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Whiplash Reform)의 내용 및 시사점」, 『보험법리뷰』를 참조바람